

## 봉무지방산업단지 주변도로 개설

### 시의회 “지방채 발행 사업집행 일러”

올해 중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대구시 동구 봉무동 일원의 봉무지방산업단지 주변 도로를 개설하려는 대구시 계획에 대구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연수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대구시의회 의장실에서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들에게 당초 예산보다 3천 467억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채 390억원을 발행해 봉무산업단지 남단도로 개설사업에 250억원, 팔공로-공항로 개설에 14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충환 부의장은 “봉무산업단지가 조성되려면 아

직 멀었고 팔공로-공항로 개설도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것 과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이들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의장은 “추경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실제 자금 집행은 올해를 넘길 수 있다. 그러면 불용예산으로 남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만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문찬 부의장도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봉무단지의 주변도로를 내는 것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 이같은 추경안은 다음달 중순에 열리는 대구시의회 예결위를 거쳐 확정된다.

김진욱기자